전주매일

▶▶ 매일 INDEX

4면
돼지카드 캐시백
기부하면 '얼굴 없는 천사'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음 1월 13일) 제27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탄소 소부장 특화 공식 지정

정부는 밀고… 전북은 끌고…

탄소산업 메카 'C-Novation Park' 육성 가속도

도, 올 상반기 내 행정 등 합동 추진단 구성 대응

전북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23일 정부로부터 공식 지정받으면서 '탄소산업의 메카인 C-Novation Park' 육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15년여 동안 키워 온 전북 탄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가 23일 공식 지정됨에 따라, 산업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확장 육성할 길이 활짝 열렸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체계적인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올 상반기 내에 관련부서를 비롯해 전주시, 유관기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탄소 특화단지 육성 추진단'을 구성한 뒤 2021년 추경예산 대상 사업부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2024년까지 추진되는 개별사업 공모 및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정치권, 중앙부처 향우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가능한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전북을 비롯한 5개도를 대상으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식을 개최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관련사진 3면〉

지정식에는 성윤모 산업부장관과 전북(탄소소재)·경기(반도체)·경남(첨단기계)·충남(디스플레이)·충북(이차전지) 도지사, 각 특화단지 앵커기업 및 협력기업 대표, 석영철 KIAT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효성첨단소재㈜ 황정모 대표, 활성탄소 응용제품 제조기업인 ㈜비나텍 성도경 대표가 참석해 탄소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육성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 탄소 특화단지 대상지는 전주의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현재 조성 중인 탄소국가산단이다.

도는 탄소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특화단지를 탄소산업 혁신생태계의 중심으로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탄소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의 탄소소재는 익산 산단에 위치한 건설·기계·뿌리기업, 군산·완주 산단에 있는 자동차기업, 새만금 산단의 에너지 관련 기업에 활용됨으로써 도내 주된 산업단지들과도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전북의 탄소소재산업은 경기도의 반도체, 충남의 디스플레이, 충북의 이차전지, 경남의 첨단기계 등 이번에 같이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산업과 접목이 가능함에 따라 상호 시너지효과도 예상된다.

전북도는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에 오는 2024년까지 탄소관련기업 110개를 유치해 집적화하고 '탄소산업의 메카인 C-Novation Park'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600억원의 24개 사업 추진으로 2024년까지 고용창출 5,500명, 매출액 7,500억원, 수출액 1,400억원을 증가시킨다는 목표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산업부장관과 간담회에서 "향후,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를 제대로 육성하면서 지역간?산업간 연계 발전을 통해 탄소산업을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24일 출범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한 산업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훈련 현장 속으로

백신 이송부터 접종 후 반응 관찰까지 '꼼꼼하게'

전북도, 완주군·소방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북도가 23일 완주군보건소에서 완주군,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완주군,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65세 미만의 입원·입소·종사자에게 처음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완주군보건소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백신의 이송과정, 백신 보관 등 예방접종 준비단계와 접종대상자가 보건소에 도착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까지 예방접종의 모든 단계를 실제상황과 같이 진행하며 점검했다.

전북도는 보건소 감염 방지와 안전한 예방접종 능력 향상을 위해 모의훈련에서 개선점을 모색하고, 운영방안을 타 시·군에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2~3월에 도내 194개소 요양·재활시설 중 83개소의 입소·종사자 1,751명과 코로나19 대응요원 3,099명 등 약 4,850여명이 보건소에서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대비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접종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완산소방서 '백신접종 이상無'

평화보건지소서 이상반응 환자 이송 등 상황 가정 진행

23일 전주시 평화보건지소에서 코로나19 방문 예방접종 대비 사전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오는 26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도 백신접종 모의훈련을 했다. 사전 훈련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마음놓고 백신접종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전주시와 완산소방서는 23일 평화보건지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명규 전주부시장, 완산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문 예방접종 대비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코로나19 방문 예방접종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이번 모의훈련은 1개팀 2개조의 방문 접종인력이 노인요양시설에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시행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백신 관리 ▲백신 수령 및 인계 ▲예방접종 실시 ▲이상반응 모니터링 ▲전산등록 등 접종 후 조치 등 5단계로 이어졌다.

보건소는 모의훈련에서 백신 약병인 바이알(Vial)을 흔들지 말아야하고 개봉 후에는 바이알에 개봉일자를 표기해야 하는 등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실제 상황처럼 설명했다. 또 접종이 완료된 후에는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후송훈련도 했다.

김승수 시장은 "대규모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초유의 일이자 시민 건강과 직결된 일인 만큼 각별한 대비와 만반의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가 및 협력기관과 힘을 합해 빠르고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